

KIA 타이거즈, 남모름 속앓이

KIA 타이거즈가 전반기를 1위로 집주함에 따라 역대 최대인 100만 관중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제기한 소음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KIA 구단과 야구장소음피해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700여명이 지난 2015년 9월 제기한 소음과 조도 명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2년째 제자리 끝을 이다.

지난해 시즌이 끝날 무렵 법원이 지정한 업체가 아파트에서 소음과 조도 등을 측정할 것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은 오는 9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사이 대책

역대 최대 100만 관중 기록 눈앞 소음손해배상소송 2년째 제자리

위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대책위는 2014시즌부터 올해까지 경기가 열렸던 날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상정하고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책위는 올시즌 KIA의 인기가 높아져 피해가 극심해졌으며 소음 측정을 다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A 경기를 보기 위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관중은 16일 기준 59만7594명으로 평균 1만4228

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13일 KIA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는 주중임에도 1만86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아 1위 집주자를 지켜봤고 올시즌 역대 최대인 100만 관중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챔피언스필드 관중은 77만3499명(1만743명)이며 2015년 71만41명(9863명), 2014년 66만3430명(평균 1만366명)이다.

이에 따라 KIA는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스피커 등의 소리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KIA 관계자는 "음악 소리 등을

낮추고 응원을 이끌고 있지만 관중들의 함성 소리는 더 커졌다"며 "소음에 따른 사과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전광판을 통해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KIA의 성적이 좋아 일부 주민들은 기뻐하고 있지만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주말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인근 친척집 또는 독서실로 학생을 보내고 있다"며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도의회, 천일염 가격안정대책 촉구

전남도의회는 정연선 의원(국민·의당·산한)이 '국내산 천일염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저염식 문화 확산 등으로 소비는 정체된 반면, 그 어느 때보다 지속된 가뭄과 때 이른 폭염으로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해 천일염 생산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실제 6월말 기준 천일염 20kg 기준 1포대 가격은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600원에 비해 35%가 하락하고 재고량도 늘어나 천일염 생산자들은 생산 원가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남지역 천일염 재고량을 보면 5월말 11만 1000톤으로 지난해 5월말 7만톤에 비해 59% 증가해 천일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 국내산 천일염에 비해 품질이 낮고 가격이 싼 수입산 식용 소금은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35만톤이 매년 수입돼 대규모 소비처에 공급되고 있고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신안·영광군은 국내산 천일염 주산지로 주민의 주소 특권 중 천일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용 천일염 4만톤을 조기에 구매하고 폐전·폐업 시 국고 지원은 물론 김치류, 장류, 젓갈류에 사용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내장산의 여름 16일 오후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내 우화정(羽化亭)을 품은 연못에 밤사이 내린 비가 넘쳐 흐르고 있다.

광주 미세먼지 '사각'...반재신 의원 "종합대책 시급"

광주지역 미세먼지 발생 횟수와 농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대책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이지 않은 만큼 시기별·지역별·계층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반재신(더불어민주당·북구) 의원은 14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수년 동안 대기질 향상을 위해 탄소중립, 친환경차 보급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맑은 공기 도시 비전까지 선포했지만 미세먼지는 예년보다 그 횟수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

수는 지난해 연간 총 8차례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차례 발령됐다. 지난 4월19일부터 한 달 동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나빠졌고 5월8일부터 8일 사이에는 '매우 나쁨'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5월6일 미세먼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관대함에도 광주지역 미세먼지 1일 환경 기준 초과 사례가 6월말 현재 33차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관측 장비도 문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1979년도에 설치한 농성동관측소를 포함해 도시대기망 측정소 7곳과 도로변 대기측정망 2곳 등 모두 9곳에서 대기환경을 측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거주환경이 급격히 변해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곳의 미세먼지 현황을 반영하기 힘든 실정이다.

미세먼지 측정기기도 10년마다 교체되고는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농도와 새로운 유해물질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3곳의 측정소에서는 조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다.

예산도 문제다. 2014년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정원도시 조성사업(54억원)이 신규 추가된 것으로 측정소 장비 교체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비산먼지 제거사업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 대책은 없다는 게 반 의원의 지적이다.

신봉우 기자

여수서 관광객 8명 식중독 의심...역학조사

여수에서 관광객 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6일 여수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화양면 한 펜션에서 정모(54)씨 등 관광객 8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 여수로 관광을 이틀간 한 이들은 전날 오후 6시께 한 횡집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기점물을 채취,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식당 조리기구 등의 위생 상태를 살피고 있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에는 식당 위생 관리 소홀에 대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전남지역 낙뢰 추정 화재 잇따라 발생

전남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이어졌다.

14일 오후 4시38분께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한 축사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119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근 주택에 거주 중인 노인이 대피했으며, 축사 일부가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축사(비어있는 돈사)는 나주 혁신도시 악취 제거를 위한 폐업보상이 진행 중인 곳으로 전해졌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 9대가 투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우 속 번개가 치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2분께 함평군 대동면 산단단지 내 석재공장 1개 동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2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조리실 철골 패널 외벽(16.5㎡)과 배전반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이 설치된 벽면에 번개가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환 기자

옷걸이로 편의점 금고 텅 40대 종업원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10분께 광주 북구 송모(44)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틈을 타 사무실 금고 속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5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금고 틈 사이로 접착테이프를 감은 옷걸이를 집어넣어, 테이프에 달라붙은 비닐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옛 여친 돈기로 때린 50대 시민에 검거

옛 연인을 돈기로 내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돈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15분께 경북 안동시 법흥동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B(59·여)씨에게 돈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서 달려온 시민 2명이 붙잡혔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6개월 정도 만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A씨가 돈기를 미러준비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